

오늘의 건설안전 한눈에 본다

「일일 건설안전관리 상황판」 구축 ... 안전정보 실시간 통합 제공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11월 20일(월) 「일일 건설안전관리 상황판(이하 “안전상황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안전상황판은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에 특화된 각종 안전보건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했다.

안전상황판은 건설현장에서 관심이 있는 지역별 날씨 정보, 사망 사고 빅데이터와 연계한 오늘 날짜의 과거 사망사고 사례, 위험성평가표 예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 일일 건설안전관리 상황판 화면 >



이외에도 ▲주요 건설안전 이슈 ▲중대재해 싸이렌 등 산재사고사망 속보 ▲민간 대형건설사의 각종 안전보건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안전상황판에서 제공하고 있다.

안전상황판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가입절차 없이 인터넷만 연결된 곳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 휴게공간이나 식당 등 근로자가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 정보 송출용 모니터(터치스크린 등)만 구비하면 간편하게 안전정보 표출이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안전상황판은 공공과 민간의 건설안전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초의 통합 플랫폼이다”라며 “앞으로도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전상황판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시스템(www.kosha.or.kr/constplan)에서 접속할 수 있다. (끝)

담당 부서	건설안전실	책임자	부 장	김성삼 (052-703-0693)
	건설기술부	담당자	과 장	조현철 (052-703-0695)

